

2024 문화도시부천 지속가능포럼 #2

문화도시부천이 귀담아 들은 관계자본 자료집

2024 문화도시부천 지속가능포럼 #2 | 문화도시부천이 귀담아 들은 관계자본 자료집

2024 문화도시부천 지속가능포럼 #2

문화도시부천이 귀담아 들은 관계자본 자료집

10.18.금 14:00-16:00
복사골문화센터 갤러리

2024 문화도시부천 지속가능포럼 #2

문화도시부천이 귀담아 들은 관계자본 자료집

2024 문화도시부천 지속가능포럼

1

문화상권으로 말하는
문화도시부천

2024. 10. 2.(수) 14시
부천시민회관 소공연장

2

문화도시부천이
귀담아 들은 관계자본

2024. 10. 18.(금) 14시
북사골문화센터 갤러리

3

2024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포럼
*연계 포럼
미래문화도시부천을 위한
문화재단의 전환

2024. 11. 19.(화) 14시
부천시민회관 소공연장

프로그램	05
01 주제발표	
지역 축제를 통해 본 사회적 자본 구축 고 경 속 한국예총부천시회 수석부회장	08
예술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장 : 부천민예총의 '416참사 부천시민기억문화제'와 '예술제' 사례 이 정 현 부천민예총 지부장	16
02 사례발표	
뜬구름 잡으며 알게 된 이웃들 젤 리 장 공공소통크리에이터	28
불록뿔룩에서 발견한 관계자본들 임 체 스 잔피 대표	46
감정사전에 기록된 우리의 이야기 김 민 희 독립서점 글한스폰 대표	50
문화도시 부천과 공존공영을 꿈꾸다 이 하 경 산제로협동조합 이사장	56
부천의 생활인구 마을미디어 활동가로서 개인의 작은 변화 정 재 성 부천사람들 대표	70
우리들의 미로 찾기 최 금 왕 작가	76

좌장 이 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대표		
개회	14:00 ~ 14:05	행사 소개 부천문화재단
인사말	14:05 ~ 14:10	환영 인사 한 병 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제발표 (각 10분)	14:10 ~ 14:30	고 경 속 한국예총부천시회 수석부회장 이 정 현 부천민예총 지부장
사례공유 (각 10분) 및 토론	14:30 ~ 15:30	젤 리 장 공공소통크리에이터 임 체 스 잔피 대표 김 민 희 독립서점 글한스폰 대표 이 하 경 산제로협동조합 이사장 정 재 성 부천사람들 대표 최 금 왕 작가
질의응답	15:30 ~ 16:00	
마무리	16:00	

01

주제발표

지역 축제를 통해 본 사회적 자본 구축

고경숙 | 한국예총부천시회 수석부회장

예술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장 :부천민예총의 '416참사부천시민기억문화제'와 '예술제' 사례

이정현 | 부천민예총 지부장

주제발표

지역 축제를 통해 본 사회적 자본 구축

01

고 경 숙

한국예총부천시회 수석부회장

문화예술축제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예술가의
유기적 창작활동문화예술축제
주체의 확장
(예술인+시민)문화예술의
저변화·생활화변화와 소통을
통한 창조적 삶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공유된 제도나 규범

네트워크 등에 기반한 신뢰와 협력

부천예총의 축제

부천예총 (한국예총 부천지회)

1984년 설립된 국악·무용·문인·미술·사진·연극·연예·음악 8개 장르의 협의체 <수평적 조직>
지역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중요한 축

부천예총의 목적

회원단체별 문화예술의 전문성 확립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여 지역, 국가 간 예술사업의 교류 및 전개

부천예총의 대표축제

복사골예술제, 복사골청소년예술제, 부천시민어울림한마당 등

말할수있는귀담아듣는

문화도시부천시

1. 복사골 예술제

✓ <복사골>이란 이름은 복숭아 산지로 유명했던 소사읍에서 유래

✓ 1985년 4월 29일, 「복숭아 고향에서 펼쳐는 예술의 한마당 잔치」 라는 뜻으로 제1회 복사골예술제 개최



말할수있는귀담아듣는

문화도시부천시

Part 2 복사골 예술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자본의 구축

1. 문화예술도시로써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

2.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로 시민 참여 유도

3. 시민소통과 다양한 문화교류 확대

말할수있는귀담아듣는

문화도시부천시

Part 1 복사골 예술제의 변화

기존

공급자 입장의 전문 예술인 공연·전시
수요자 입장의 시민 참여

현재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이
함께 축제를 주도

“예술의 쌍방향 소통”

말할수있는귀담아듣는

문화도시부천시

2. 복사골 청소년 예술제

✓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축제 ‘내숭無 성찰有’

✓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축제기획단이 되어 직접 축제 기획 및 운영

✓ 청소년의 내재된 열정을 깨우고 꿈을 펼치는 기획의 장



말할수있는·귀담아듣는

문화도시·부천

Part 1

복사골 청소년 예술제의 현재

코로나 펜데믹 등의 사유로 축소 운영
축제기획단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와해 및 재정립

BUT

축제의 모범적 사례로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
연인원 수천명에 이르는 청소년문화의 분류

말할수있는·귀담아듣는

문화도시·부천

2. 부천시민 어울림 한마당

✓ 시민 스스로 만들고 즐기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참여형 축제
✓ 가장 부천적이고, 가장 시민적인 축제
✓ 새로운 도시개념의 축제 지향





말할수있는·귀담아듣는

문화도시·부천

Part 2

복사골 청소년 예술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자본의 구축

1.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의 정착
2. 공연문화와 지적완성도를 높인 균형있는 축제
3.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거리에술적 요소 부각
4. 특별체험활동을 극대화시킨 부스 운영

말할수있는·귀담아듣는

문화도시·부천

Part 1

부천시민 어울림 한마당의 현재

시민어울림한마당 추진위원회 구성

부천예총의 전문가들 외 유관단체, 시민전문가 등 <관계성 기반>

행사규모

• 퍼레이드, 콘테스트, 춤한마당, 시상식 등 모든 과정 하루에 진행
• 참가지원비와 상금 등의 예산지출로 관의 지원 불가피

MEMO

지역 축제를 통해 본 사회적 자본 구축

- 복사골예술제 · 복사골청소년예술제 · 부천시민어울림한마당을 중심으로 -

고경숙 부천예총 수석부회장

■ 들어가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즉 공유된 제도나 규범, 네트워크 등에 기반한 신뢰와 협력 같은 자산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여러 활동 사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 기반의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술의 궁극적 목표와 닿아있다.

개별적 창작 활동이 주된 예술가들이 유기적 창작활동의 결과물로서 축적한 사회적 자본은, 부천시 승격 50년의 역사와 함께 축제의 가시적 외연만 넓힌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도 거듭하며 무형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반한 지역 성장동력이 되곤 하였다. 그것은 문화예술축제가 생산과 공급 주체자인 전문예술인에서 소비와 향유의 대상이던 일반 대중으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이 깨어지고 일반 대중이 주체가 되는 현상으로 변화되어가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삶의 신선한 동기부여가 되고 ‘문화예술의 저변화, 생활화’가 실천되는 긍정적 변화를 낳았다. 또한 예술의 최종 목표인 인간 경험을 표현하고 탐구하며, 사회와 소통하고 변화와 축진을 통한 창조적 삶과 가능성 추구라는 점에서 볼 때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시민 또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적 자본 구축 사례로 예총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예총의 축제들

- 예총의 목적

예총(한국예총 부천지회, 이하 ‘예총’)은 국악 · 무용 · 문인 · 미술 · 사진 · 연극 · 연예 · 음악 8개 장르 협의체로 회원단체별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확립하며, 문화 도시 부천의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국제 간, 지역 간, 예술사업의 교류 및 전개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 예총의 정체성

예총이 연합 협의체라는 정체성은 타 기관의 구성과는 사뭇 다르다. 수직적 조직이 아닌 수평적 조직으로 각 장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예술창작활동에 따른 회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업무수행에 노력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1984년 설립 이후 전문예술인들은 각 장르별로 가열차게 예술창작 활동을 해왔다. 초기 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지역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이후 부천시 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 예총의 변화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복사골예술제, 부천시민어울림한마당, 복사골청소년예술제 등으로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지만, 연인원이 수천 명 이상 행사인 세 축제는 각자 독특한 성격으로 부천의 축제를 선도한다.

1.복사골예술제



1) 유래

‘복사골’은 복숭아 산지로 유명했던 소사읍에서 유래되었다. 1973년 부천시 승격 당시만 해도 그 명성이 전국적이었고, 봄이 되면 지금의 송내동에서 현 소사본동까지 복사꽃이 만발해 온통 꽃의 향연으로 장관을 이루었다. ‘복사골’은 부천의 수많은 시인들이 시와 노래로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노래했으며 이는 부천만이 가질 수 있는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다.

1985. 4. 29일 제1회를 시작으로 ‘복숭아 고향에서 펼쳐는 예술의 한마당 잔치’란 뜻으로 시작했으며 현재는 8개 장르의 예술인들이 모여 복사골예술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2) 현주소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 ‘복사골예술제’는 예술축제로서, 지역예술인들에 의해 처음 시작될 당시만 해도 전문예술인들이 펼치는 공급자적 입장의 공연이나 전시를, 시민들은 수요자로서 향유하고 즐기는 형태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 향상과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일방형 관람이 아닌, 쌍방향 소통의 예술을 원하는 단계가 되었다. 이제는 예술인들이 주체가 아닌,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가치적 삶의 지향이 되기 위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3) 사회적 자본의 구축

지난 40년간 부천 지역문화 축제의 근간을 이루며 부천만의 특화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초기 전문예술인들의 노력은 개인 창작활동에서 나아가 부천 시민들을 위한 정서함양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에 중점을 두었다.

-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

2002년 복사골예술제가 5대 문화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고, 문화도시와 유네스코문학창의도시 선정 이후,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술인들의 노력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로 시민 참여 유도

초기의 예술제 성격에서 지금은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형식으로 바뀌었는데, 8개 협회가 진행하는 전문예술 행사는 그대로 예술성을 유지하고, 예총에서는 전체적인 홍보와 개막식을 진행하며, 시민들이나 유관단체들, 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들까지

참여행사, 체험행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운영하였다. 그 해의 컨셉에 따라 기획행사도 하는 등 다양성과 효율성까지 두루 갖춰가고 있다.

이 과정에는 2000년대부터 예총에서 ‘기획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많은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복사골예술제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축제의 효율적인 진행과 운영에 대해 연구 분석했다. 이는 주최자가 자기함몰에 빠질 수 있는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목시켜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그해 축제의 컨셉을 미리 잡고 컨셉에 맞게 전체 축제의 그림을 그리고, 기획한 행사들이나 각 협회들의 통일성을 끌어낸다. 워크샵에서 객관적 피드백과 심도 있는 소통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백서 발간 및 매뉴얼화 시킴으로써 경험의 축적은 고스란히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된다. 한 곳에 뿌리내리고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주의식이 뛰어나 사회적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 시민소통과 다양한 문화교류 확대

어릴 때 부모님 손을 잡고 복사골예술제 사생대회나 백일장에 참여했던 복사골 키즈들이 시 승격 50주년, 예총 설립 40주년을 지나는 동안 부천과 함께 성장했다. 제39회 복사골예술제 개막식에서는 그렇게 자라 대한민국의 유명 예술가로 발돋움한 복사골 키즈들의 빛나는 공연이 있었다.

2. 복사골청소년예술제

1) 정의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축제로 부제인 ‘내승無 성찰有’는 말 그대로 이날만큼은 내승을 떨치 말고 감추어져 있던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라는 의미로, 이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드는데 의의를 둔다.

복사골청소년예술제의 축제기획단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이다. 축제의 기획 단계부터 실제 운영까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한 새로운 해석과 창의성, 청소년의 자존감 함양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24회를 치렀다.

2) 현주소

복사골청소년예술제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모범적 사례로 유명하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청운위’)가 와해되었다가 다시 정립되느라 아직 확고해지진 않았지만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DoDo한 경연대회’는 보컬,댄스,밴드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으로 전국에서 모인 백여 개의 예선 팀 중 스무 팀을 선정한다. 24회를 치르는 동안 팬데믹과 예산의 이유로 축소운영된 것을 제외하면, 연인원 수천 명에 이르는 청소년문화의 본류라고 자부한다. 본선에 진출한 20팀이 꾸미는 본선무대는 청소년들의 내재된 열정을 깨우고 꿈을 펼치는 성장드라마로 일찍이 한류 음악의 등용문 역할을 하며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왔다.



3) 사회적 자본의 구축

-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의 정착

입시와 시험에 노출된 청소년기는 놀이문화의 미숙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접할 기회가 드물었다. 자신들이 기획하고, 자신들이 운영 진행하는 복사골청소년예술제는 자존감을 높이고 성숙한 문화의 학습으로 오디션 과정조차도 각 장르의 참가자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행사의 궁극적 목적처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방향타 역할을 해줌으로써 단순한 놀이문화가 아닌 지적 성장을 동반한 성장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이다.

- 공연문화와 지적완성도를 높인 균형 있는 축제

〈DoDo청소년토론대회〉는 ‘복사골청소년예술제’에서 현재는 없어진 프로그램이지만, 올바른 토론문화를 익히고 삶의 문제점들을 청소년의 시각으로 대입해보고 아름다운 소통을 이뤄내 토론의 새로운 지평을 넓힘으로써 몸과 마음의 근력이 탄력있게 성장하도록 발판을 마련한 유의미한 프로그램이었다. 다만 입시정책의 변경

으로 교외 상장이 효용성이 떨어짐과 함께 행사도 소멸돼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다.

-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거리예술적 요소를 부각

복사골청소년예술제는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일반적인 공연축제와는 맥을 달리한다. 인근 지역을 넘어 전국단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회 자체만으로도 부천이미지 제고와 홍보효과가 크다. 본선에 진출한 팀 중 우수한 팀을 발굴해 프린지 무대나 버스킹 기회를 제공하고, 복사골예술제, 찾아가는 작은 무대 등 예종의 다른 행사들과 연계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

- 특별체험활동을 극대화시킨 부스 운영

진로 탐색,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등 청소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 ‘교복패션왕 선발대회’, ‘지덕체 3종경기’ ‘DoDo사진공모전’ 등 공연팀이 아닌 청소년동아리나 그룹을 위한 단합과 화합의 프로그램들도 강화시켰다.



3. 부천시민어울림한마당

1) 정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서 새로운 도시개념의 축제를 지향한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즐기는 시민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하며, 기업체, 예술단체, 학교, 관공서, 다문화가족 등 남녀노소, 연령층을 가리지 않는 자유로운 참여 속에서 부천 시민의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심어준다.

가장 부천적이고, 가장 시민적이라는 점이 타 축제와 차별화되는 특징으로 유모차를 탄 아기팀부터 백세를 바라보는 실버세대들까지, 전 세대를 망라하는 부천 유일의 축제로서 참가단체 각각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2) 현주소

- 시민어울림한마당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주관단체인 부천예총의 공연,예술기획의 전문가들 외에 유관단체, 시민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축제의 성격상 시민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단체들의 분포를 이해하고 운영, 진행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지만, 타성에 젖어 객관성이 결여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보호장치이기도 하다. 16회를 운영해오며 쌓아온 경험적 자산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 기반한다.

- 행사 규모

행사 구성 상 퍼레이드와 콘테스트, 춤한마당, 시상식까지 일련의 과정이 하루에 이뤄지게 된다. 행사비의 대다수가 참가지원비와 상금 등으로 지출되는 형태라 예산과 직결되어 관의 지원이 불가피하고 그 영향 하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의 경우, 100팀이 넘게 신청을 했지만, 사정 상 80여개 팀만 선정하고 참가하게 돼 아쉬움이 컸다.

3. 사회적 자본 축적

- 참가단체와 함께 성장한다

자생적으로 성장 발전한 팀들은 16회를 거듭해오며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초기 학교나 기업, 단체들의 참여가 주를 이뤘다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버세대 어르신들이 구성원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변화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초기 참가자들이 <부천시민어울림한마당>과 함께 나이를 먹는다는 점이다. 자칫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참여자’의 고령화가 ‘참여도’의 고령화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60대 연령층 인구수가 40대 연령층 인구수를 웃도는 현실을 인식한다면 생물학적 나이에 불과한 참가층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은 장년층과 많은 부분 겹친다는 점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 부천시민어울림한마당 하나로 대변한다.

부천의 10월은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잠정 중단되었던 경우를 제외하곤 매년 연 인원 2천 명을 넘어서는 참가자들, 자연 관람객들로 인해 행사장 주변은 도로를 통제하고 지역 전체가 떠들썩하다.

‘부천’이라는 지역성, ‘시민’이라는 폭넓은 상징, ‘어울림’이라는 대화합, 그리고 ‘한마당’의 정체성까지 어느 것 하나 시민친화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서로 얼굴만 봐도 가족처럼 느껴지는 주관단체와 참가 단체 팀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십여 년을 지나오면서 2천여 명이나 되는 큰 행사에 불미스러운 일 하나 없이 성장 발전했다. 이 또한 큰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다.

- 축제는 지속발전하고 있는가

○ 참가단체의 유입은 주로 복지관 강좌반, 주민센터 강좌반, 문화원 동아리, 예총 강좌반 등이다.

○ 초기 아마추어로 시작한 팀들이 꾸준히 발전해 예술인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멘티를 만들고 동아리를 꾸려 생활예술의 저변확대를 모범적으로 시키고 있다.

○ 큰 틀에서 바라보면 건강한 시니어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인생 2막을 의미 있고 건강하게 생활함으로써 노인문제, 나아가 의료비까지 절감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노인 한 분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 라는 말처럼, 건강한 어르신들은 건강한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이 사회를 지킨다.

- 실버문화를 선도하는 멘토링 연계

일부 행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타 시군의 상업축제, 관광축제와 단순 비교되는 경우가 있었다. 부천시민어울림한마당은 순수 민간형 축제로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즐기는 자발적 축제로, 부천만의 고유한 컨셉이다. 그럼에도 주최 측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내거는 장점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약점은 아닌지를 정확히 평가하고 연구 분석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화 시키는 일, 행사 외의 노인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입체적인 구성을 해야 하는 일, 젊은 층의 유입 등도 끊임없이 고심해야 한다.

■ 나오며

프랑스에선 경제가 어려울수록 문화예산을 늘린다고 한다. 이유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무형의 사회적 자산이 창출해내는 가치의 중요성과 그 파급효과를 알기 때문일 것이다. ‘축제도 복지’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예종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창작자에서 나아가 이 시대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도 갖춰야 할 때이다.

노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시기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화 시키는 일, 노인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축제에 대입해 입체적인 구성을 해야 하는 일, 젊은 층의 유입도 끊임없이 고심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이 겪어야 할 성장통을 대비하고 올바른 청소년문화를 선도, 정착시킬 멘토 역할은 분명 우리 예술인의 책무이기도 하다. 축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방안에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궁극적으로 그 힘이 미래를 판가름한다는 거대담론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MEMO

주제발표

예술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장

: 부천민예총의 '416참사 부천시민기억문화제'와 '예술제' 사례

이정현

부천민예총 지부장

01

1. 서론: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과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의미합니다. 문화예술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간의 연결과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 사회적 통합과 연대감 강화

문화예술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나 공연은 관객과의 감정적 교감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2) 지역 사회의 활성화

문화예술 활동은 지역 사회의 경제와 사회적 구조를 활성화합니다. 예술제나 전시회와 같은 문화행사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끌어들여,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예술가와 지역 주민 간의 협력은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3) 교육과 인식 증진

문화예술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다양한 예술 활동은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예술은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논의하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을 넓히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4) 정신적 웰빙과 치유

문화예술은 개인의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술 표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예술적 경험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생성하며,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천민예총의 활동은 이러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문화예술이 어떻게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확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부천민예총 활동 소개

부천민예총은 진보적 예술활동과 실천을 통하여 지역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한 창작 활동 지원, 예술을 통한 사회적 참여 및 예술인연대, 시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주요 활동

- 416참사 부천시민기억문화제, 부천민예총예술제
- 예술 체험 워크숍,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 공공예술 프로젝트
- 문화예술교육

2) 416참사 부천시민기억문화제 사례

416참사에 대한 부천시민기억문화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천민예총의 활동과 사회적 자본을 연결하는 이론적 및 학술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자본 이론, 기억 문화와 사회적 치유, 그리고 시민 참여와 공동체 형성의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 사회적 자본 이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자원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이를 활용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416참사 기억문화제를 통한 부천민예총의 활동이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방식을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의 사회적 자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은 사회적 자본이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된다고 보며, 이러한 자본이 공동체 내에서 협력과 상호작용을 촉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천민예총이 주최하는 부천시민기억문화제는 416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공동체 내에서 연대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속적 (Bonding) 사회적 자본 : 기억문화제는 참사로 인해 상처받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 지지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내부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교량적 (Bridging) 사회적 자본 : 더 나아가, 이러한 행사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의 소통을 장려하고 외부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그룹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나. 기억 문화와 사회적 치유

416참사 기억문화제는 사회적 치유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참사의 피해자들과 지역사회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 이론에 의하면 사회 집단이 특정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이 공동체 정체성과 사회적 결속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억문화제는 지역 사회가 416참사를 공동으로 기억하며, 이 기억을 통해 참사로 인한 고통을 공유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트라우마와 기억의 사회적 역할로 기억 문화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서, 피해자들과 지역사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구축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공통된 고통을 기억하고, 사회적 트라우마를 예술과 문화적 표현으로 승화시키며, 사회적 치유와 회복을 돕습니다.

다. 시민 참여와 공동체 형성

기억문화제는 시민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과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참여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론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와 공동체 형성: 기억문화제는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의 중요한 이슈를 기억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결속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델리버레이티브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이론에 따르면, 시민들이 공공 영역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을 때, 더 건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합니다. 기억문화제는 시민들이 416참사를 기억하며 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공 영역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2016



2019



2020



2022



2024



라. 기억문화제 활동의 사회적 자본 창출 효과

- 상호 신뢰와 연대 강화: 416참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다양한 집단 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
- 공동체 의식 증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고통을 함께 기억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임.
- 참여와 소통 촉진: 기억문화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소통을 촉진.

3) 부천민예총예술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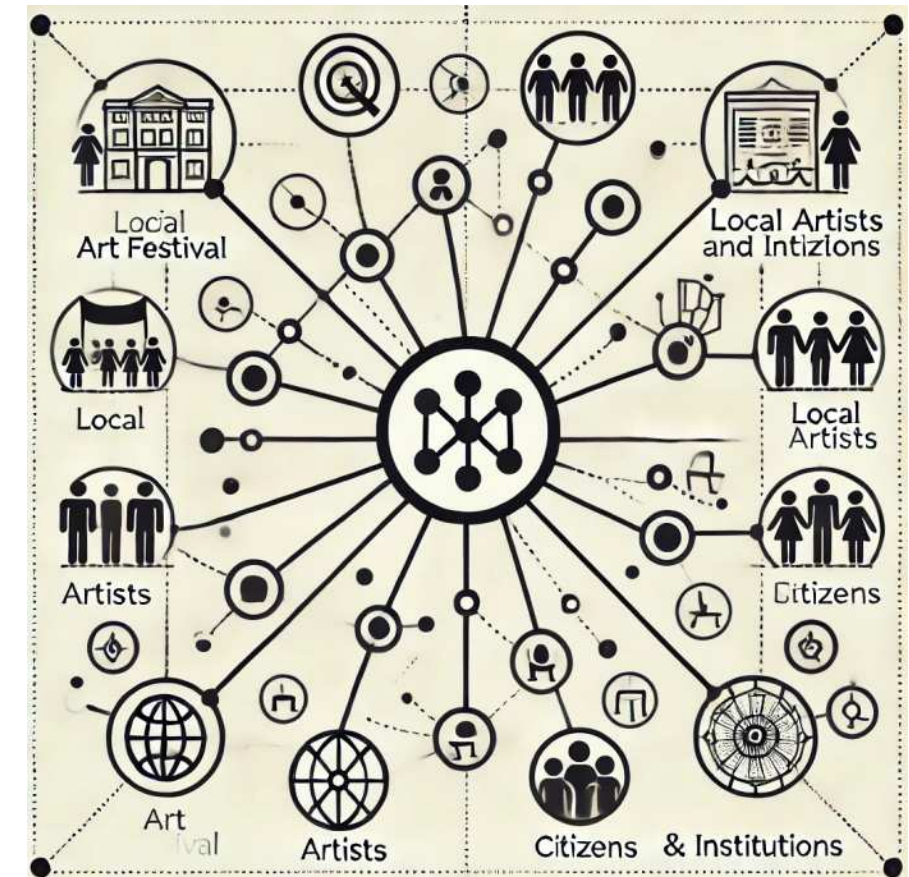
[2023 해님이 예술제]



[기울어진 시선전]

가. 사회적 네트워크

아래 이미지는 예술제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시각화한 예시입니다. 중앙의 큰 원이 예술제를 나타내고, 그 주변의 작은 원들이 예술가, 시민, 기관을 나타냅니다. 간단한 선들은 그들 간의 연결을 보여주며, 예술제가 이 관계를 중심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도]

나. 학술적 토대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 자본 이론에 따르면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과 문화 자본이 상호작용하여 개인과 집단이 사회 내에서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천민예총의 ‘해님이예술제’와 ‘시선전’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 활동을 통해 문화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더 많은 신뢰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사회적 자본을 확장시키는 기제입니다.

-창조적 공동체와 예술의 사회적 역할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의 ‘창조적 계층(Creative Class)’ 이론에 따르면, 예술가와 창작자들은 지역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천민예총의 예술 활동이 지역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와 문화가 활성화됨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아트와 사회적 통합: 기억문화제뿐만 아니라 ‘시선전’과 같은 기획 전시와 해넘이에설제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 내에서 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예술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 이론(Social Network Theory)에 따르면, 예술제는 참여자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정보, 자원,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하며, 부천민예충의 예술제는 지역 예술가와 시민들이 서로에게 연결되고, 그 결과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이 공유되는 환경을 조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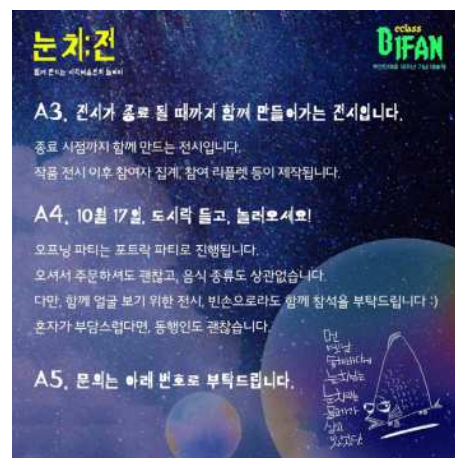
다. 예술제 활동의 사회적 자본 창출 효과

-시선전의 사회적 자본 확장 효과

: 시선전은 단순히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서,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장으로 기능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예술에 접근할 수 있고, 예술가들 역시 시민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창작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술제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 예술제는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시민, 기업,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역 내에서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되고, 이는 부천민예충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장시키는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2024 시각예술인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전시 기획 눈차:전]

3. 결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제언

부천민예충이 416참사 부천시민기억문화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와 협력,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참사의 고통을 공유하고 치유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을 통해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지역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부천민예충의 지속적인 역할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가치 기반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예술가 지원 시스템 구축: 기초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의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예술로서의 지역 정체성 강화:부천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민이 문화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예술작품이 도시의 일상적인 공간에 자리잡아 주민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내 청소년 및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창의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Realizing the values of art: making space for cultural civil society (2024) Erwin Dekker and Valeria Morea.

The Role of the Arts in Social Transformation. Vol. 38, No. 3/4, WINTER 2011 – SPRING 2012, The Golden Thread: Essays in Honour of C.D. Deshmukh, Kapila Vatsyayan.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1993) Robert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2000) Robert Putnam.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1993) Robert Putnam.

Aldridge, S., Halpern, D., & Fitzpatrick, S. (2002). "Social Capital: A Discussion Paper." Social Capital Research.

Narayan, D. (2002). "Bonds and Bridges: Social Capital and Poverty." In Grootaert, C., & Bastelaer, T. (Eds.),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Development: An Empirical Assess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 Richardson, 241-258. New York: Greenwood.

Bourdieu, P. & Wacquant, L.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ourdieu, Pierre.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241-258. New York: Greenwood. (1986)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rgatti, S. P., & Halgin, D. S. (2011). "Analyzing Affiliation Networks." In *The SAGE Handbook of Social Network Analysis* (pp. 417-433). SAGE Publications.

Scott, J. (2017). *Social Network Analysis*. SAGE Publications.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2002) Richard Florida.

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 (2005) Richard Florida.

Halbwachs, Maurice. *On Collective Memory*. Edited and translated by Lewis A. Cos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Borgatti, Stephen P., Everett, Martin G., and Johnson, Jeffrey C. (2018)

MEMO

02

사례발표

뜨구름 잡으며 알게 된 이웃들

젤리장 | 공공소통크리에이터

볼록볼록에서 발견한 관계자본들

임체스 | 잔피 대표

감정사전에 기록된 우리의 이야기

김민희 | 독립서점 글한스폰 대표

문화도시 부천과 공존공영을 꿈꾸다

이하경 | 산제로협동조합 이사장

부천의 생활인구 마을미디어 활동가로서 개인의 작은 변화

정재성 | 부천사람들 대표

우리들의 미로 찾기

최금왕 | 작가

사례발표

뜬구름 잡으며 알게 된 이웃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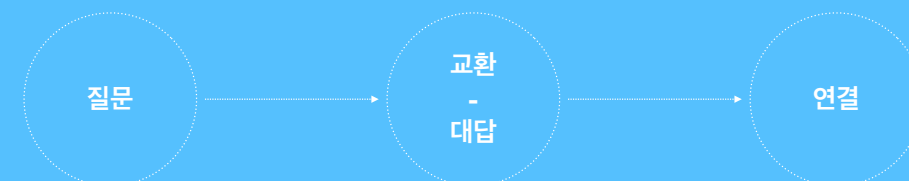
젤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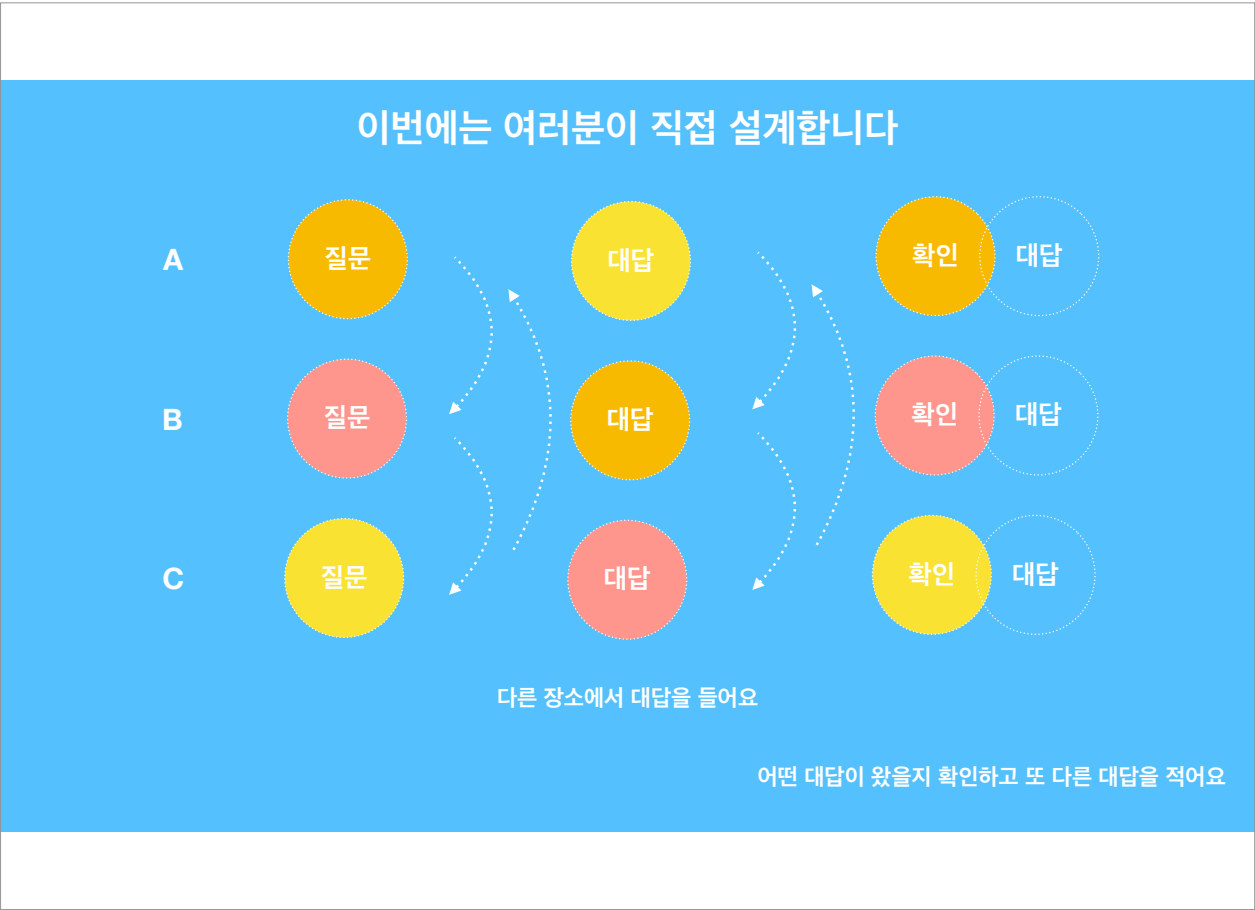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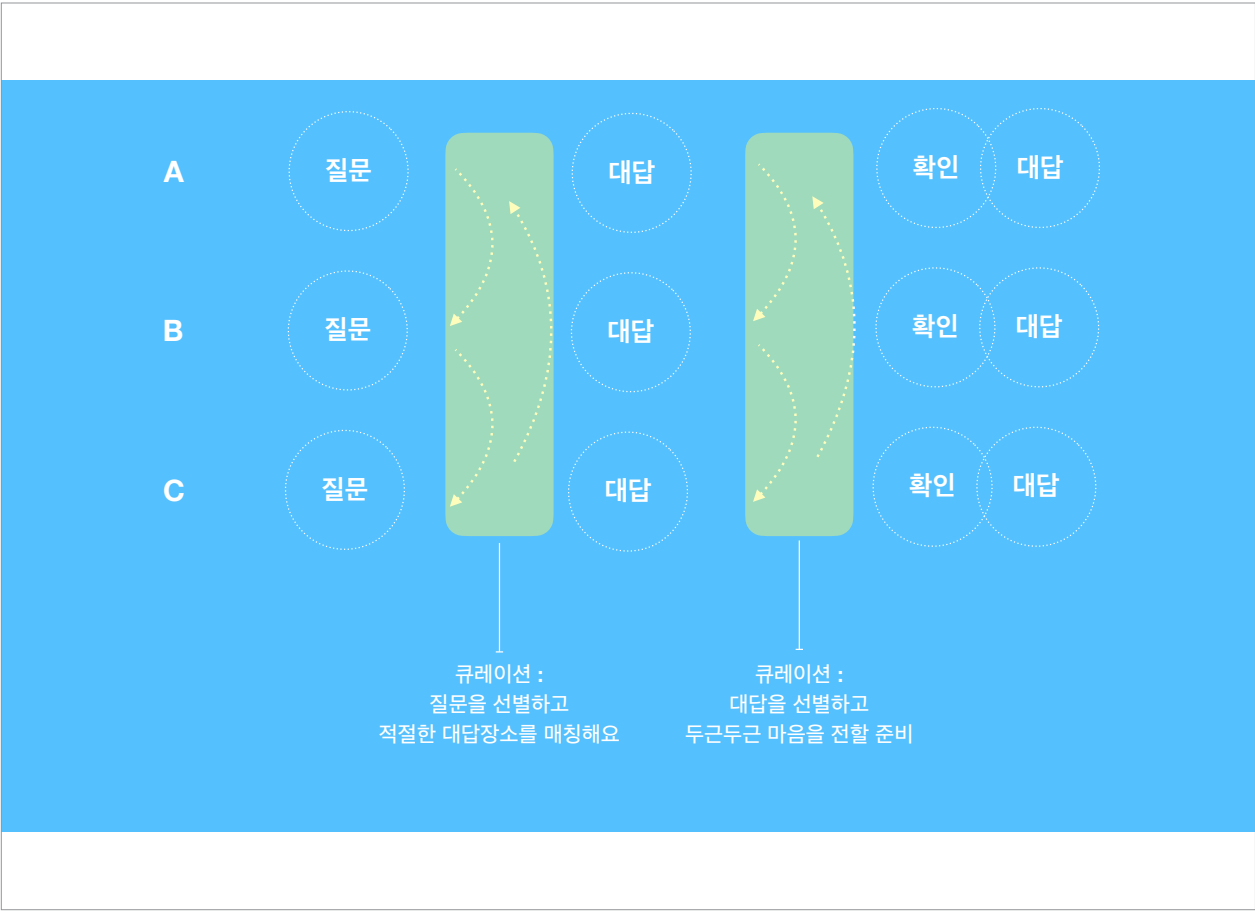
공공소통크리에이터

뜬구름 같아도 좋은 질문과 대답이
뜬구름 처럼 부천 곳곳을 오고갑니다.
좋은 질문과 대답하려는 마음은 보이지
않았던 서로의 생각을 연결합니다.
알지 못했던 이들의 존재가 느슨하게
연결되는 건강한 다정한 부천의
문화를 경험합니다.

누군가의 질문에 좋은 대답을 하려는 마음이
여러권의 책처럼 엮이고 쌓입니다. 부천의
학교에서 만들어내는 질문과 대답의 연결과정과
결과의 책은 건강한 문화교환을 보여주는 따뜻한
시작 사례가 되어 부천 곳곳을 유영하며 시민과
함께 풍성하게 덧대어집니다. 이웃과의 다정한
질문과 대답은 다난한 사회가 따뜻해질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해놓은 질문에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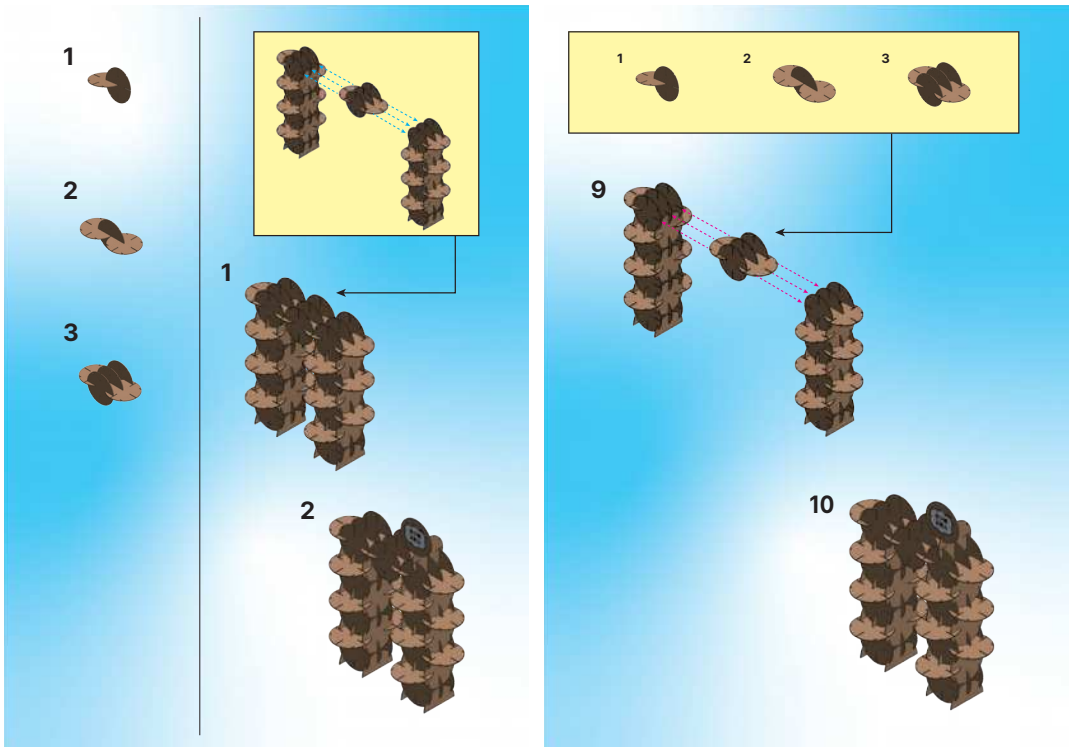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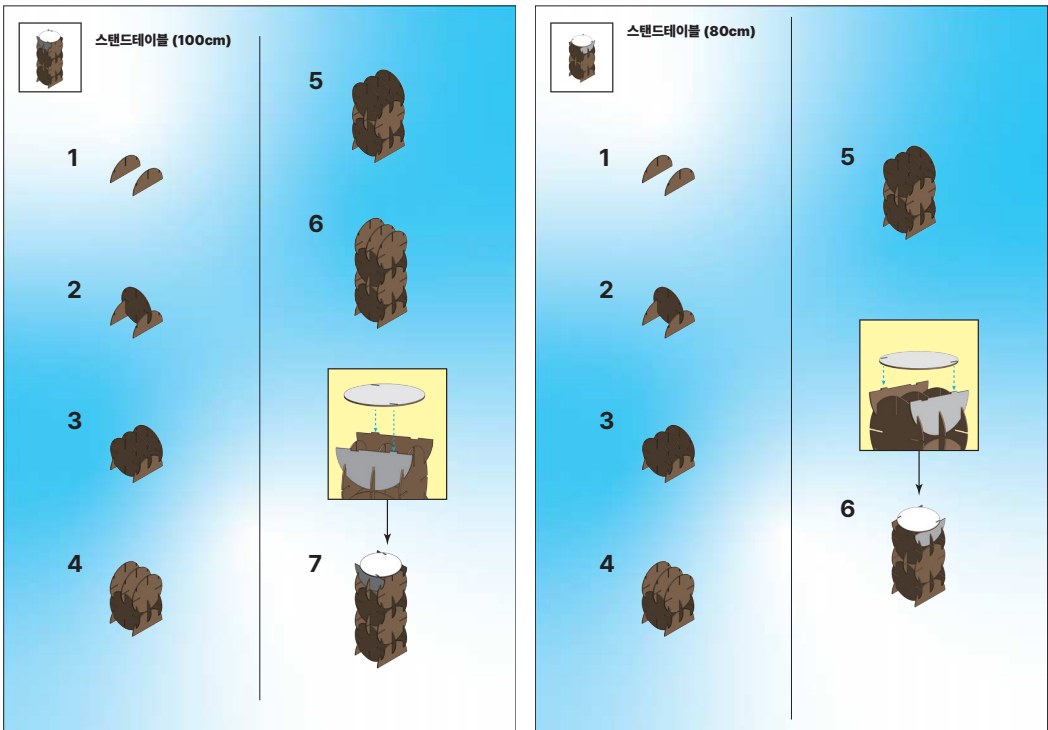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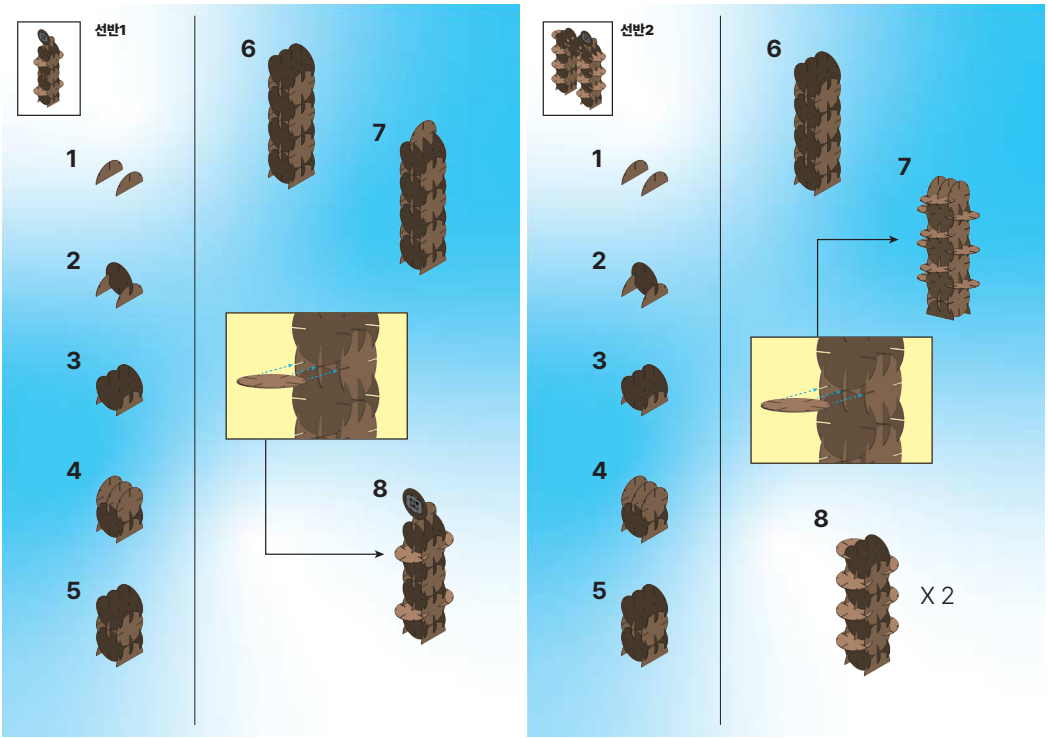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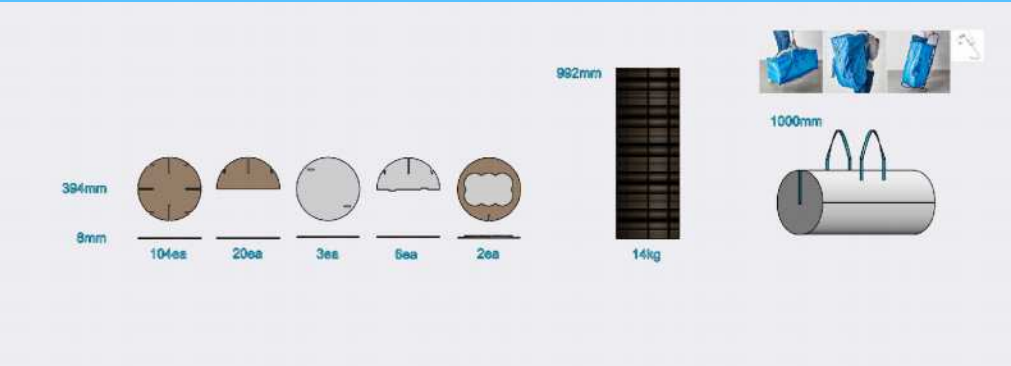




2023
송내초등학교 - 부인중학교

2024
산학교 - 노인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 복사골문화센터

교환소 구성품 안내





질문데이 시물레이션

① 선반 위 파란 질문종이를 들고
곳곳에 놓인 책상으로 이동해요.

② 책상 위에 있는 바인더에
파란 질문종이를 꽂아요.

③ 생각난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
파란 질문종이에 정성껏 적어요..

대답데이 시물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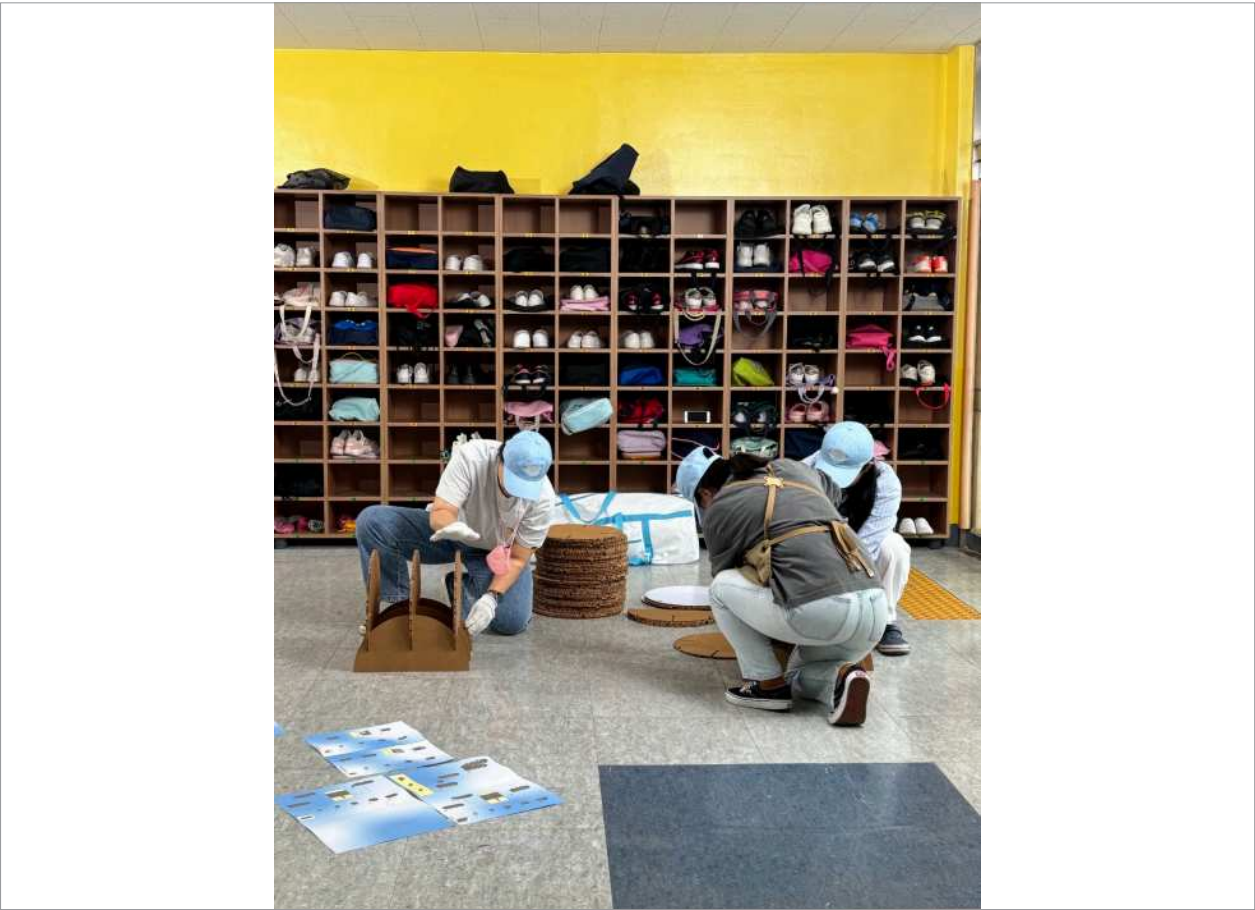
① 놓여진 질문 책 하나를 골라
책상으로 이동해요.

② 책을 펼쳐 누군가 적어 놓은 질문을
읽고 곰곰히 생각해요.

③ 질문에 대한 생각을 노란색 대답종이
한 페이지에 적어요.

④ 많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다른 대답들도 읽어봐요.

⑤ 다른 사람도 페이지를 채울 수 있도록
책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요.



질문법 가이드

질문하는 3가지 방법:

어떤 질문을 해야할 지 모르겠나요?

STEP 1

내 질문의 색깔 정하기

STEP 2

친절한 질문을 만들기

STEP 3

마법의 끝 문장을 사용하기

큐레이션을 대하는 우리는

대답법 가이드

대답하는 3가지 규칙

규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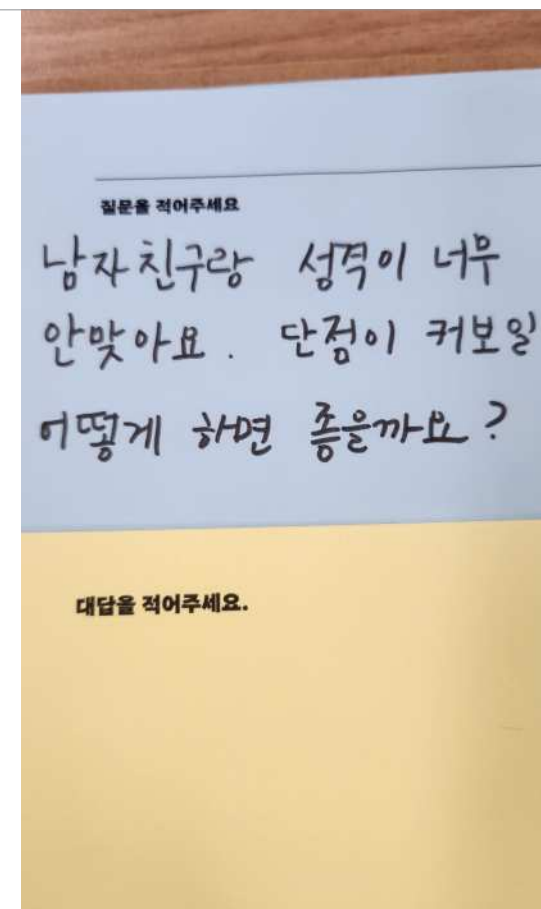
존중하는 대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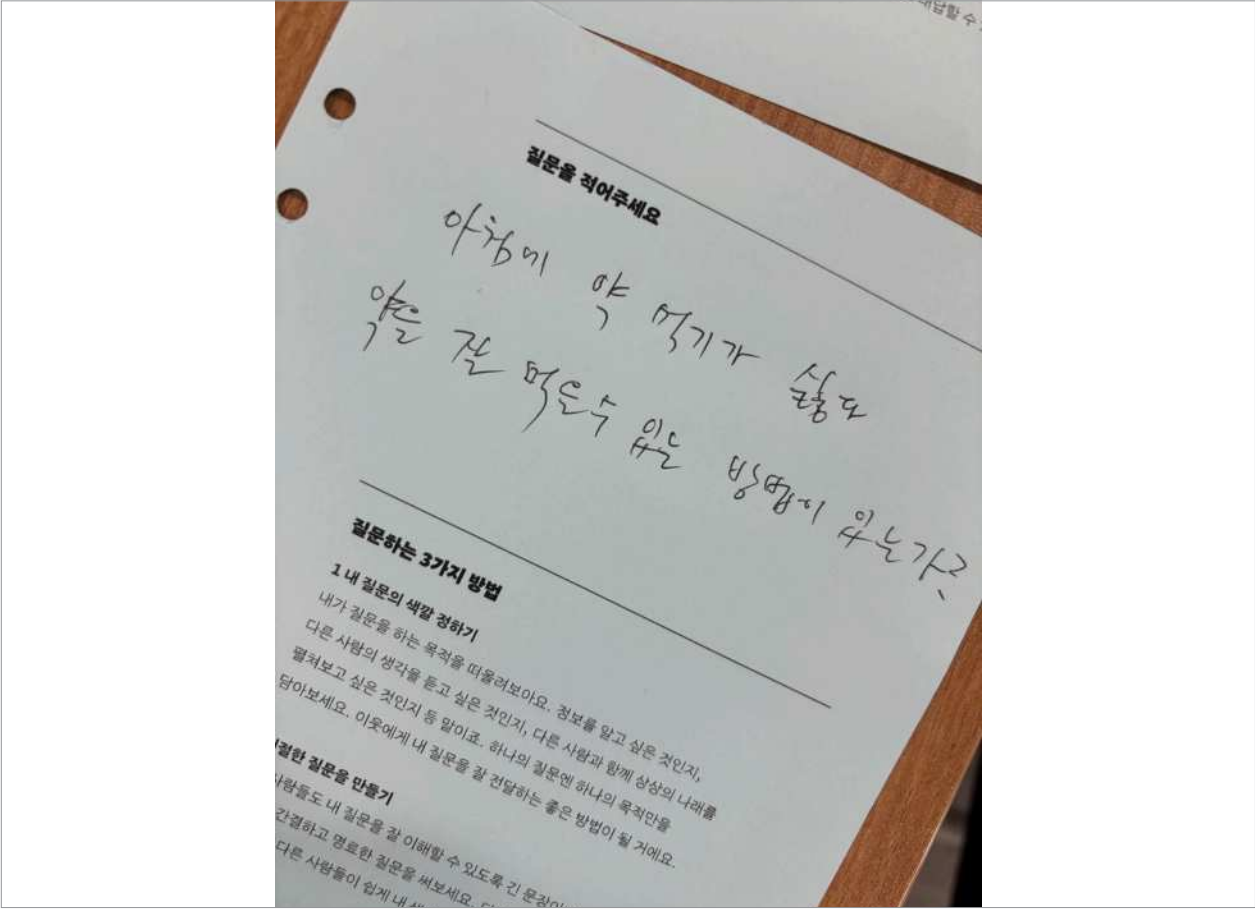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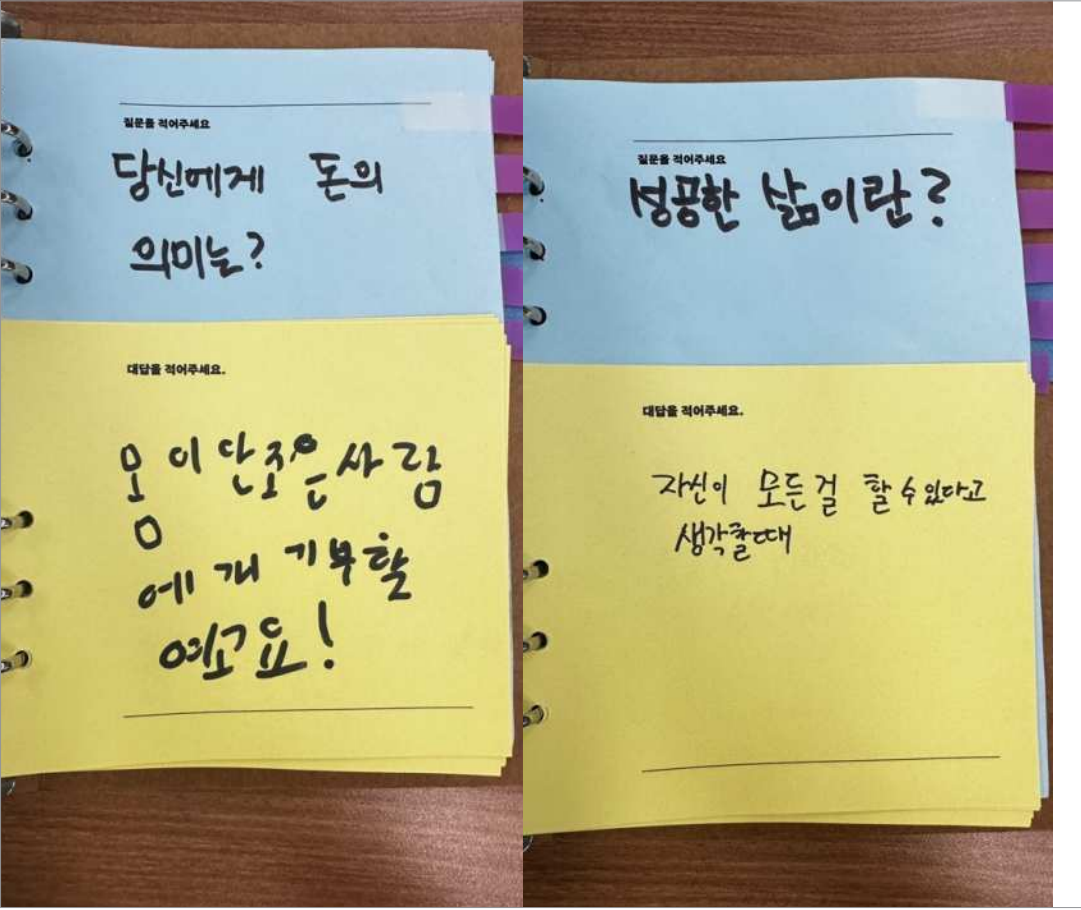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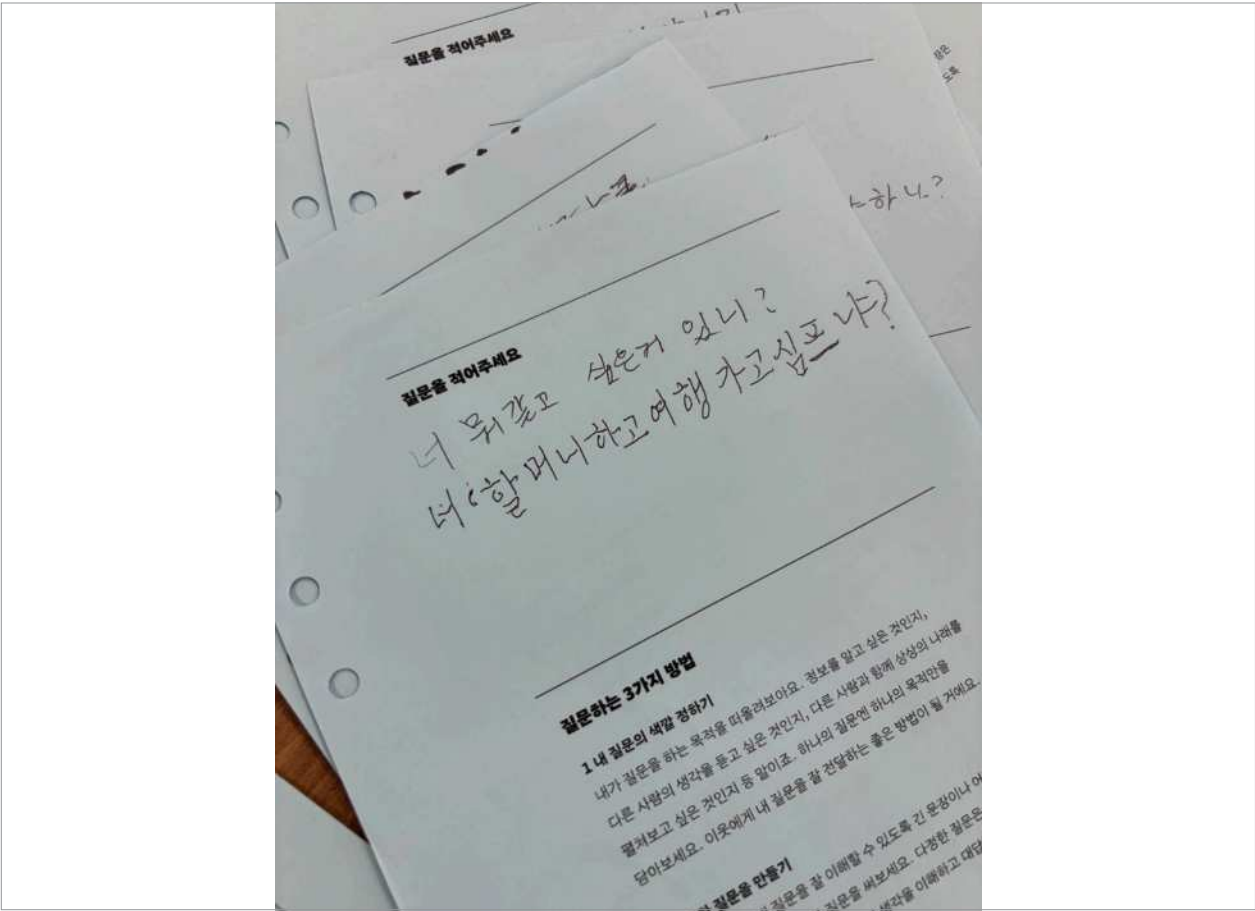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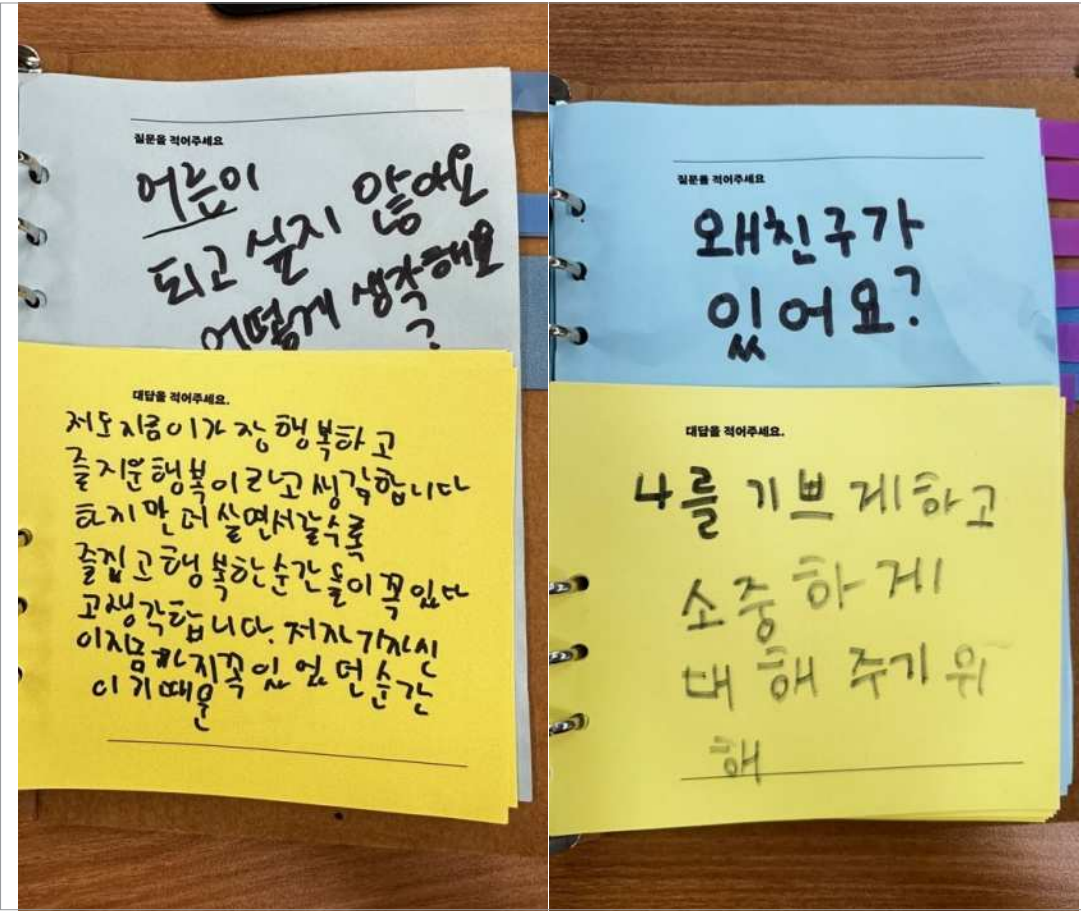
규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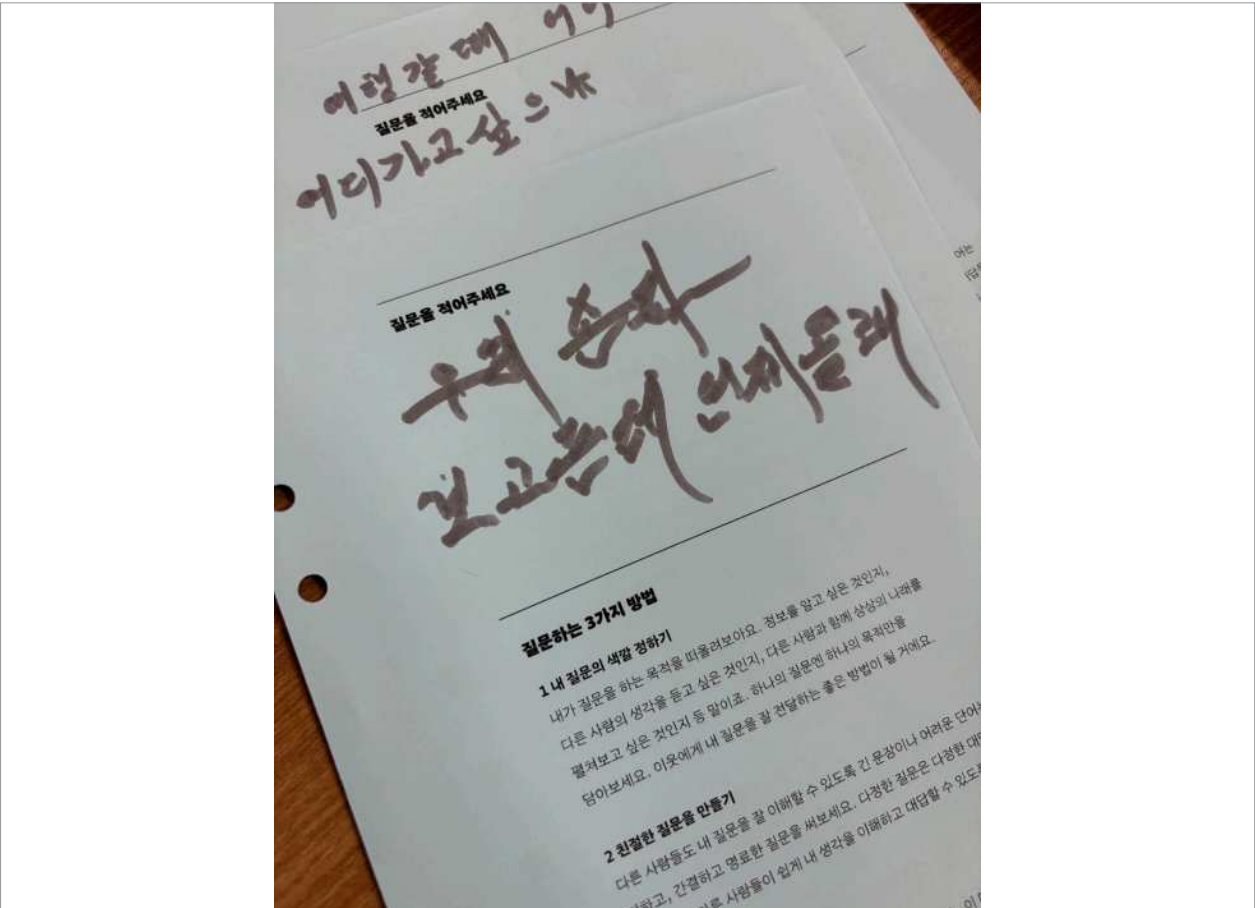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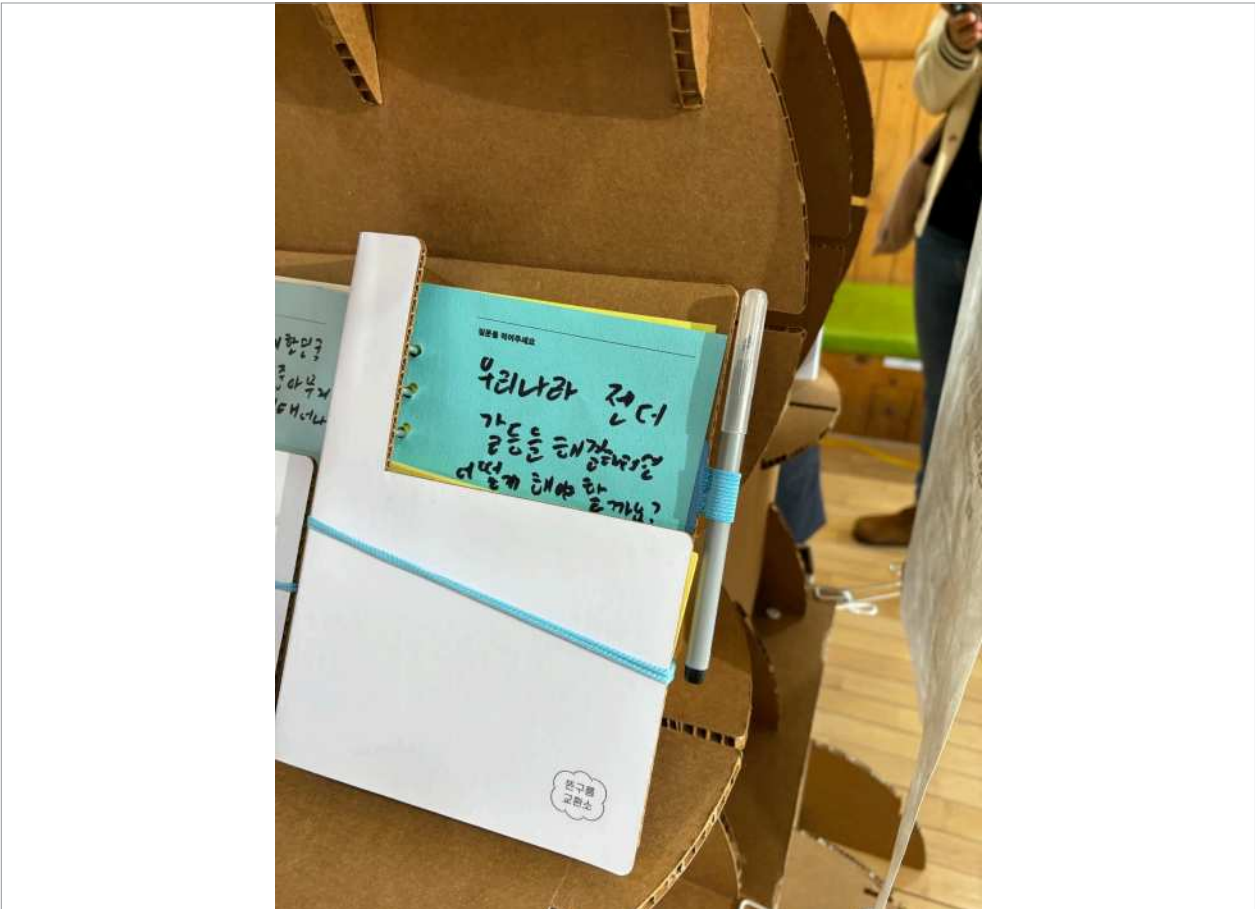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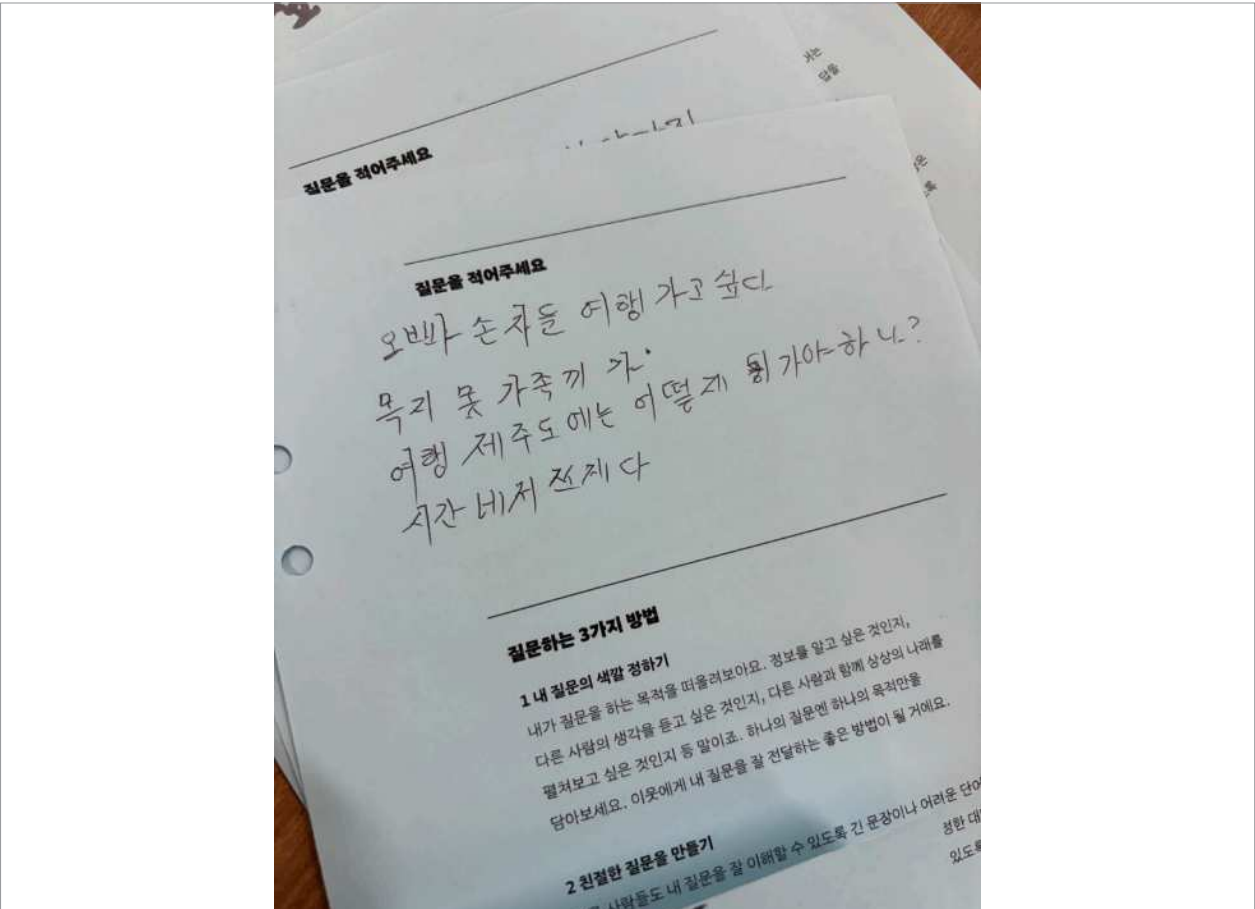
집중하는 대답하기

규칙 3

다정한 대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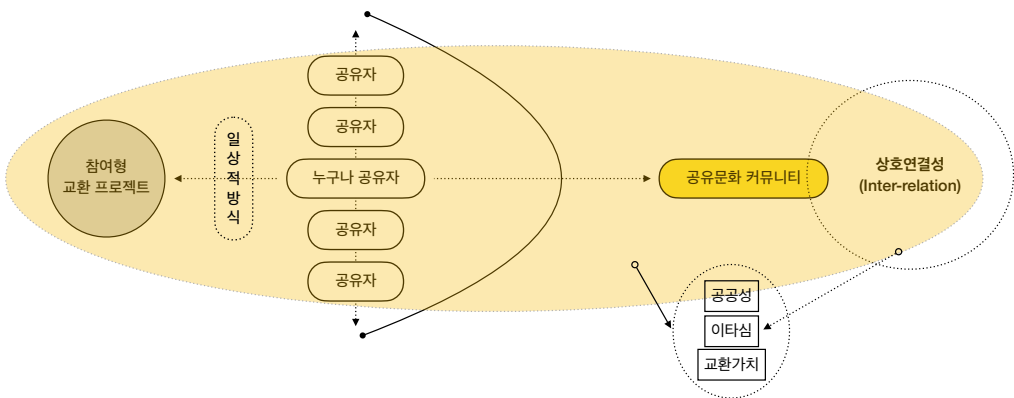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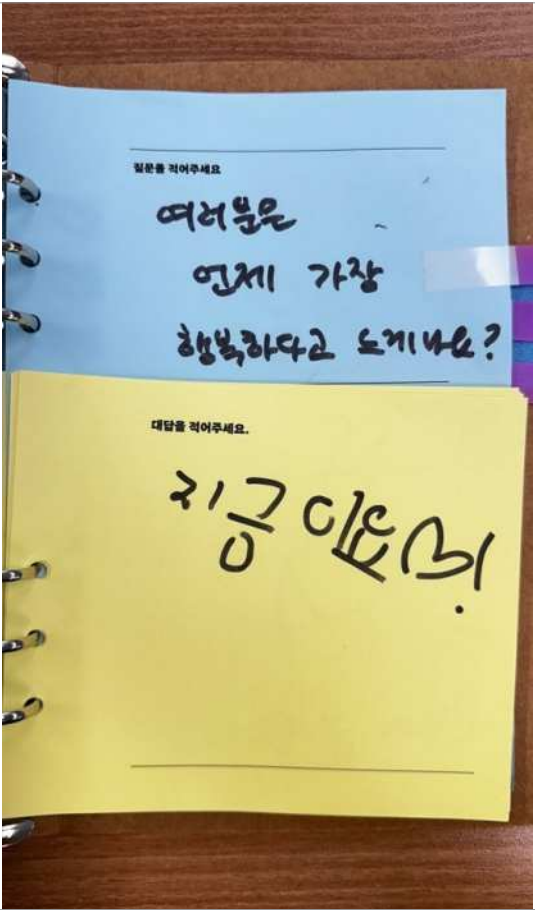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상호연결성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 교환의 시작



1. 높아진 시민의식에 따라 개인 대 개인의 교환가치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동체 이익을 위해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이익 순환구조를 '일상적인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제시한다.
2. 주어진 일상의 주제 안에서 '궁금한 것을 자연스럽게 묻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의 대담을 공유해내려는' 시도의 장을 유쾌하게 풀어낸다.
3. 단순히 묻고 답하는 행위가 아닌, 누구나 공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경험과 가볍든 무겁든 공유 행위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제공한다.
4. 지역 내 학교 간 공유문화 커뮤니티(관계망)를 형성한다.
5. [문화교환소]가 추구하는 [순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질문/대담'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는 사례를 도출한다.
6. 문화교환소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상호연결성(inter-relation/서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하고 시민과 공유한다.
7. 코로나19 이후 학교 커뮤니티의 소통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 문화교환소의 '교환가치', '공공성', '이타심' 개념을 선제적으로 학교에 제안한다



사례발표

볼록볼록에서 발견한 관계자본들

02

임 체 스
잔꾀 대표

방해 자본_어린이 식당 마루

: 공동체의 앞길에는 방해물, 골칫거리 같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린다.



구멍 자본_어린이 식당 마루

: 공동체는 개구멍을 뚫는 일부터 시작되지만,
숨구멍 되지 못하면 허물어진다.



취향 자본_산제로 협동조합

: 공동체는 서로의 규칙과 미감을
알아봐 주는 관심으로 연결된다.



굉음 자본_산제로 협동조합

: 공동체는 시끄럽지만, 고달프다.



기억 자본_퍼머컬처 바람농장

: 공동체는 기억을 나눠주는 놀이로
끈끈해 진다.



부탁 자본_퍼머컬처 바람농장 + 협동조합 소란

: 지속가능발전을 꿈꾸는 공동체는
오래 걸린다. 멀리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



목욕탕 자본_공유지를 만드는 사람들

: 공동체는 삶의 찌꺼기를 씻겨준다.



사례발표

감정사전에 기록된 우리의 이야기

02

김민희

독립서점 글한스폰 대표

CHAPTER 2

이웃들의 이야기를 만나다



이미지출처)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CHAPTER 1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는 곳

글한스폰은...

- 소나무로 둘러싸인 마을, 송내동에 위치한 동네책방입니다.
- 다양한 이야기를 개성있게 담아낸 독립출판물을 소개합니다.
-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출판학교를 운영합니다.
-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를 책으로 제작하는 독립출판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인성교육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책방지기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CHAPTER 3

시민의 이야기가 콘텐츠로 탄생하다

부천시민의 삶과 일상 속의 감정이 담긴 글을 모아 한 편의 도시문학을 만들어가는 과정
법정문화도시사업 '이야기 콘텐츠 발굴 및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사업



×

시민의 감정 교류가 지역의 관계자본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THANK YOU!

✱

글 한 스 폰

✕

010-4668-1705

solbooks.kr

spoonful_of_letters@naver.com

MEMO

MEMO

사례발표

문화도시 부천과 공존공영을 꿈꾸다

02

이하경

산제로협동조합 이사장

주요 사업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커뮤니티 자원순환거점
플라스틱방앗간운영

환경교육플랫폼 운영
환경교육,체험 기획 진행

환경 캠페인 기획 진행
공유문화 플랫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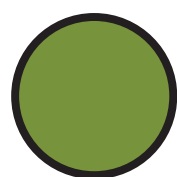
찾아가는 제로웨이스트
다회용 다과,식사 케이터링
다회용 커피트럭
문화기획

산제로협동조합
is...?



SAN

사다, 소비
산



ZERO

0부터 다시~
제로

아이들에게 좀 더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운동 시작

2021년 산제로 협동조합 설립

사람들이 제로웨이스트를 잘 모른다.

혼자서는 할 수 가 없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2021년 문화도시 네트워크 조성사업

송내동 네트워크 형성



제로웨이스트 문화확산을 위한, 고수들의 실천기 - 꼬꼬 제로!!



다회용사용 문화형성을 위한 '또 답아갈 지도' 제작



코로나로 위축되고 침체되었던 사회 분위기



변화

송내동 주민들의 관심과 상권이 활성화
다회용 사용 문화 형성의 초석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면, 해결할 수 있다.



2022년 문화도시 부천 시민총회 발의
부천시내 문화행사와 축제를 모두 제로웨이스트로!!

2022년

재미있는 일 없을까?

작당 모의

길어지는 코로나로 더 심각해진
일회용쓰레기의 심각성

공유텀블러 대여거점 : 공유텀블러 정거장 실험



2023년

제로웨이스트 케이터링 프로젝트 사업화



문화도시 부천의 적극적인 선택



경기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부평문화재단, 경기도교육청, 인천교육청, 부천시청, 복지관, 경기콘텐츠진흥원



100회이상 32,000개 이상 일회용쓰레기 감축

2023년 문화도시 마을조성사업
부천 마을 프로젝트 볼록볼록
'생태전환마을 만들기'



생태전환마을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024년 문화도시 마을조성사업
부천 마을 프로젝트 볼록볼록
'생태전환마을의 탄소중립연구단 프로젝트'
'재미있게 놀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



문화도시 부천 마을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자본 지원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마을 네트워크를 조성,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기회,
내가 사는 마을을 자세히 바라봄으로써 관심과 애정이 생기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기회로 연결
시민 문화기획자로서의 성장과
자생력을 키워내는 기회,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우리가, 우리공동체가, 우리마을이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경력보유여성 **13명**, 청년 **4명**, 장애인 **3명** 시니어 **21명**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현재는 **7명의 강사진**과 **3명의 직원** 고용창출.



플라스틱방앗간 운영



환경캠페인



자원순환거점



환경교육



찾아가는 제로웨이스트 다회용 케이터링 및 공유문화 플랫폼



이제는 변화를 위한 선택이 **필수**입니다!!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

가치
소비



찾아가는 제로웨이스트 - 사람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산다방'



한 행사에서 줄이는 일회용 컵, 빨대, 트레이 1000개 이상



산제로 상점
Thank you



사례발표

부천의 생활인구 마을미디어 활동가로서 개인의 작은 변화

02

정재성
부천사람들 대표

부천 처음 알아보기 - 유튜브 무료 강좌

두달만 배우고 나면 "나도 유튜버"

발행 : 2019-06-10 15:24 | 수정 : 2019-06-10 15:24

부천문화재단,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 과정 무료로 수강, 28일까지 신청 접수



부천시민미디어센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

경기 부천에서는 누구나 '크리에이터'를 꿈꿀 수 있다.

부천 11년차 직장인(생활인구)

교통체증



거래처



회식맛집



부천과 첫 관계맺기 - 시민환영테이블



문화도시 시민네트워크 시민환영테이블

부천 첫 선택하기 - 부천마을미디어



부천 문화도시조성 연계사업
부천마을미디어 오리엔테이션

1부 오리엔테이션 사업 설명 및 마을미디어 헌장서 발표 2부 참여자 네트워킹

(개인)YouTube vs (공동체)마을미디어

부천 첫 네트워크 - 부천마을미디어 네트워크



2023 부천마을미디어 지도

공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

부천 첫 확산활동 - 전국 미디어 공모전 수상



부천 전통시장 친환경 행보, 우수 미디어 수상

부천문화재단, 마을미디어 '부천사람들' 미디어창작콘텐츠 우수상

정서영 기자 syonev21@naver.com | 등록 2022.12.09 17:34:07

부천의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

전통시장은 장바구니, 용기 사용보다 아직도비닐사용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 부천마을미디어 활동 단체 '부천사람들'이 제작한 제5회 미디어창작콘텐츠 수상작 '친환경 비닐 이야기' 영상 장면

2021 부천마을미디어 축제

경기마을미디어축제

공개방송 2.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청취자가 원하는 이야기

네트워크 활동 - 문화도시 이야기 페스티벌 공개방송



2022 문화도시 시민회의 이야기페스티벌

말할 수 있는, 귀담아 들는 문화도시

다양한 시민의 이야기 - 시민마이크

네트워크 활동 - 찾아가는 이야기 페스티벌 청소년편



산학교, 도당중학교 학생들의 이야기

부천의 사회적 자본 - 부천마을미디어 네트워크



혼자 하면 단순 꿈이지만, 함께하면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네트워크 활동 - 부천남중 How Sweet 영상제



복지우선지원 학생들의 미디어를 통한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사례발표

우리들의 미로 찾기

02

최금왕
작가

최금왕

- 동화작가
- 부천예술찾기 미로 <코이아, 바다로 가자> 대표
-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대표

【주 제】 우리들의 미로美路 찾기

- 부천예술찾기 미로(美路) 라는 프로젝트명에서 2023년도 <핼핑핼핑! 마중물>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동기
- 장애아와 엄마들의 미로(迷路)에서 미로(美路)로 가는 여정 과정을 문화예술을 통해 동행길을 디카시로 기록

【진 행】 ※ 부천문화도시 사업 참여

- 2018년 어린이감정사전(유아편) 위음
- 2019년 어린이감정사전(초등학교편) 위음

핼핑핼핑! 마중물 디카 시집
오색 별 무리



시와 동화

2024 문화도시부천 지속가능포럼 #2 ‘우리들의 미로(美路) 찾기’

일시 : 2024. 10. 18 (금) 14:00~16:30
장소 : 복사굴문화센터 갤러리

<http://www.youtube.com/watch?v=GU6RJMIPCY/>
<http://www.youtube.com/watch?v=gM7CbzZ65XY/>

【진 행】 ※ 부천예술찾기 미로美路 선정 프로젝트

- 2023년도 <핼핑핼핑! 마중물> 프로젝트

장애인과 엄마가 2인 1조가 되어 부천시 모네정원, 일상생활, 자연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느낌(마중물)을 넣고, 잡채된 감성을 핼핑핼핑하여(핼핑핼핑!!)
디카시집 발간과 2024년도 데스크카렌다 제작하여 발간 도서와 함께 디카시전을 열고, 동화작가와와의 만남을 통해 엄마와 장애아가 문학예술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길.
* 공감하는 눈높이, 마음깊이

시선(視線)을 시선(視善)으로, 장애(障礙)를 장애(長愛)로, 미로(迷路)를 미로(美路)로


* 2023년도 5월 ~ 10월의 시간을

- 놀이문화로 다가가 즐기며 기록하여 문화예술로 승화
- 장애아와 엄마가 함께 걸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서사
- 먼 훗날 오늘을 기억하는 여정
- 디카시로 기록 : 디카시집 <오색 별 무리> 발간, 전시회
- 나눔 (전국 사회종합복지관 400부 기증)

- 2024년 <코이아! 바다로 가자> 프로젝트 진행 중

- 지속가능하도록 2023년도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함
- 동시, 동화, 시화 등 전시회에 이어 복콘서트로 연결 다원예술로 승화(자작시와 자작동화 낭송 및 구연동화)

발할수있는 귀남아들은




2023년도 부천예술찾기 미로(美路) 선정작 <펌핑펌핑! 마중물>

모네 정원, 공원과 일상생활에서 자연(나무, 풀, 벌레, 꽃 등)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느낌을 감성(마중물)으로 쓰고, 잠재된 감성을 펌핑질하여(펌핑펌핑!) 디카 시집(동시+사진과의 만남) 발간과 엄마와 함께 2024년도 데스크캘렌다 제작, 동화작가와와의 만남의 장을 통해 엄마(가족, 보호자)도 장애아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아 가는 시간을 찾아가는 길 즉 미로(迷路)에서 미로(美路)의 문화예술분야 문학 으로 안내.

2024년도 부천예술찾기 미로(美路) 선정작 <코이야! 바다로 가자>

<펌핑펌핑! 마중물>을 업그레이드 한 <동시+그림+북콘서트>의 놀이문화예술이다. 장애아와 엄마, 작가가 모네정원 등 자연(나무, 풀, 벌레, 꽃 등)과 일상에서 느낀 감성을 이야기 나누고, 아이는 동시로, 엄마는 손바닥동화, 수필을 써서 작품을 발간하는 프로그램이다. 발간된 동시집 글과 그림을 시화전으로 열고, 6개월간 진행된 프로그램 길에서 만난 에피소드를 장애아와 엄마아빠, 선생님,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북콘서트를 통해 공감하는 프로젝트다. 이에 장애아를 키우면서 침체된 부모 들의 정서를 펌핑할 작가들과의 만남과 더불어 채식지도를 해 줄 작가들과 1:1로 만나 동시집<코이야! 바다로 가자>을 발간, 동시달력, 시화전, 북콘서트로 코이가 어 항 속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이라는 물길을 따라 넓은 바다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는 2024년도 나만의 서사작업

발할수있는 귀남아들은



진행길에서

*** 시작** – 눈높이에 마음 닫힌 엄마들

- 마음깊이에 움츠림, 망설임, 주춤주춤.
- 할 수 있을까?
- 글에 대한 관심과 상, 칭찬 등의 기억을 간직한 엄마들
- 장애아와 장애엄마와 동일시하는 사회 시선에 갇힌 엄마들

*** 진행** – 펌핑펌핑 – 마음 문을 여는 엄마들


- 마중물에 반응하는 아이들
- 문을 여니 눈높이는 문제가 안됨을 알아가는
- 마음 나눔이 곧 자존감을 채우는 관계라는 것을 느끼는
- 공감과 더불어가 주는 마음깊이
- 문화예술이란 더불어 함께 그리고 스스로 즐김
- <펌핑펌핑! 마중물>을 통해 엄마의 꿈이 생김

작곡, 어린이집 선생님, 그림, 노래, 등 다양한 엄마들의 직업을 문화예술로 콜라보하려는 의욕상승

*** 마무리** - 장애인의 특별한 감성을 품격있는 문화예술로 거듭나 더불어 누리는 행복한 삶 누리기

-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조금씩 시작하는 엄마의 취미와 아이의 취미를 협업한 미래설계
-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공감과 나눔을 취미로 연결되는 문화예술이었음을 안다.

발할수있는 귀남아들은



<펌핑펌핑! 마중물> & <코이야! 바다로 가자>

2023년도 <펌핑펌핑! 마중물>	2024년도 <코이야! 바다로 가자>
시선(視線) 시선(視善)으로, 장애(障礙)를 장애(長愛)로, 미로(迷路)를 미로(美路)로	
디카시	동시, 낭송, 북콘서트
사진, 시화전	그림, 시화전
디카시집	동시집
눈높이	마음깊이

발할수있는 귀남아들은



<펌핑펌핑! 마중물> 동행 후 소감



동행인 10인

강정규 동화 작가
문이영 동화 작가
박성현 교사
박진경 교사
변향숙 모네정원 대표
왕성수 디카 시인
유타루 동화 작가
이효민 부천시장애인
중심복지관 관장
최금원 동화 작가
최동삼 동화 작가



오늘은 내가
무감시
내가 들어 참
파라와
내가 알려 줄게



주문
빙글 소의발을 뛰어
와일
행복해시켜
맘

특별한 아이와 엄마들의 만남과 함께 다카시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사진 을 찍고 시를 써야 할지 몰라 뻘뻘 지웠다 반박하다가 동화작가님들의 격려와 배려로 방향이 잡혀갔다. 또한 모네정원에서의 시간은 도심 속 오아시스에 있는 듯 자연과 하나가 되어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쩌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던 올 한 해 가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만남과 소중한 순간들을 작품으로 남기 게 되어 뿌듯하고 기쁘다. 세상과 단절하고 우울한에만 살고 있을 우리에게 빛이 나오록 기회 를 주시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시며 도움을 주신 최금원대표님과 인민선생님, 그리 고 각자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주신 동화작가님들,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 원해신 복지관장님과 모네정원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성 장한 나의 하에리에게도 고맙다.

손하엘 & 이나라

늘 언제나처럼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에 있다면 망설임 없이 다가가듯이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걸다가 우연히 펌핑펌핑!! 마중물을 만났습니다. 기댄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아이 와 같이 사진으로 마음을 담고 시로 속삭이면서 아이에게 물려 있던 소중한 감정들이 섬섬을 을 느꼈고 엄마의 마음에도 무언가 피어오름을 느꼈습니다. 함께 느꼈던 소중한 행복했던 감정들을 함께 담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유준 & 방명숙

88 2024 문화도시부천 지속가능포럼 #2

문화도시부천시 귀남아 들은 관계자본 89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 2017년도 도시다감 어린이감정어사전 유아편, 2017년도 초등학교편 위임.
언어의 중요성을 떠나서 시대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서사
2. 2023년 부천예술찾기 미래에 선정된 <펍핑펍핑! 마중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회
3. <어린이 감정어사전>과 <펍핑펍핑! 마중물>
문화예술세계에서는 색깔과 모양새가 다른 또다른 문화를 탄생시키는 모태
4. 문화예술의 다원예술화하면 서로 다른 시각과 경험을 융합시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출
5. 쿼터제의 궁극적인 목표
문화예술을 통하여 대상의 경계를 뛰어넘어 상호작용하며 창조적인 영역을 넓힘
사회배려계층-눈높이, 마음깊이만 서로 조율한다면, 경계선이 없어짐
6. 코이가 바다로 나가 다양한 물고기들과 더불어 어울릴 수 있도록 쿼터제의 문턱 없애기 위한 노력
이들의 문화예술은 비장애인들 보다 더 지속가능한 시간이 필요하고, 느리게 가는 것을 눈높이 마음깊이에 초점을 맞춰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지원과 제도 건의
7.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부천시에 걸맞은 문턱이, 제도가 필요없는 모든 이들이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의 선도적인 도시가 되길 바라

MEMO

MEMO

MEMO

2024 문화도시부천 지속가능포럼 #2

문화도시부천이 귀담아 들은 관계자본 자료집

발 행 처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발 행 일 2024. 10. 18.

발 행 인 한병환 | 대표이사

편 집 인 김현아 | 문화예술본부장

기획총괄 김기석 | 문화도시부 부장

기획·진행 이가영·김다정·김수지·우윤지 | 문화도시부

문 의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부
032-320-6483